



GILLETTE 부르고뉴 — 제3막

부르고뉴 — 프랑스
제3막 — 마지막 수확

이야기는 결코 같지 않다. 이야기가 만나는 순간들이 결코 같지 않기 때문이다. 장소가 변한다. 계절이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 길을 가로지르면, 예측은 모든 가치를 잃는다.

나는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다. 오늘 나는 더 큰 강렬함으로, 거의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처럼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 기억이 거는 전화, 시간의 문을 계속 두드리며 지나간 것뿐 아니라 어쩌면 아직 있을 수 있는 것까지 일깨우는 목소리.

제3막 — 마지막 수확

Sabine이 곁에 있으니 미래는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미래는 하나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나는 포도밭 너머를 바라보며 새로운 계절들을 그려 보았다. 내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영지를 말 타고 돌아볼 힘이 없을 때 남아 있을 무언가를 생각했다. 오랜 세월 나는 일을 쫓아다녔다.

책임.

도전.

성과.

나는 여러 나라를 건넜고, 사업을 일으켰고, 승리와 패배를 알았다.

그런데도 평온은 부르고뉴의 그 한구석과, 시간이 뜻밖에 내게 돌려준 그 여자를 골랐던 것 같다.

Sabine은 포도나무 사이를 내 곁에서 걸었다.

우리는 말이 적었다.

어느 나이가 지나면 당신은 침묵이 말보다 더 분명하게 진실을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날들은 내가 한 번이라도 알았던 적이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단순함으로 흘러갔다.

포도주는 통 속에서 천천히 익어 갔다.

포도밭은 제 계절을 따랐다.

말들은 들판을 자유롭게 달렸다.

아이들은 더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내 삶을 바라보았다.

그럼 포도주는?

글쎄, 로마인들이 이미 그 답을 내놓았다.

In vino veritas.

포도주 속에 진실이 있다.

가면이 떨어진다.

거짓말이 힘을 잃는다.

묻어 두었던 감정조차 결국 말할 용기를 찾는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그렇게 상상했다.

부르고뉴.

포도밭.

말들.

Sabine.

가까이 있는 내 아이들.

포도나무 줄 사이를 말 타고 지나며 가지치기를 살피고, 햇빛이 포도나무에 닿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나 자신.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아흔한 살이 되어 있었다.

아흔한 살.

한 남자가 더 이상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보았다고 믿는 나이.

나는 틀렸다.

영지의 긴 진입로를 올라오는 또 다른 차 소리를 듣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젊은 남자.

차는 속도를 줄이더니 우리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다.

나는 Sabine을 보았다.

나는 차를 보았다.

나는 차에서 내리는 젊은 남자를 보았다.

짧은 한순간, 나는 삶이 내가 이미 살았던 한 장면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느낌을 받았다. 여자는 문을 닫고 가만히 서서 집을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를 보았다.

그녀는 우연히 그곳에 오지 않은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여러 해를 찾아 헤맨 사람의 표정이었다.

결에서 Sabine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 역시 움직일 수 없었다.

여자가 몇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젊은 남자는 가까이 머물렀다.

그녀는 나를 주의 깊게 살폈다.

너무 주의 깊게.

확인을 찾는 것처럼.

평생 이야기로만 들어 온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것처럼.

마침내 그녀가 미소 지었다.

부드러운 미소.

거의 쓸쓸한 미소.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단 하나의 질문을 했다.

“Ferdinando Frega 씨인가요?”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아볼지도 모르는 것에서 온다.

부르고뉴는 우리 주위에서 고요히 서 있었다.

포도밭은 저물어 가는 빛 아래에서 숨 쉬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Sabine도.

젊은 남자도.

나도.

그 순간 나는 아흔한 해가 내게 가르쳐 주지 못한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삶은 끝내지 못한 셈을 좀처럼 닫지 않는다.

삶은 그것을 간직한다.

지켜 준다.

통 속에서 쉬는 포도주처럼 천천히 익어 가게 둔다.

그러다 이야기가 끝나 간다고 믿는 바로 그때, 영원히 봉인되었다고 생각한 문을 연다.

하나의 기억.

하나의 질문.

하나의 후회.

한 여자.

어쩌면 한 아들.

어쩌면 오래된 사랑.

혹은 어쩌면 우리에게 닿기까지 한평생이 필요했던 진실.

나는 꿈쩍 않고 서 있었다.

곁에는 Sabine이.

앞에는 그 여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에 속한 — 혹은 어쩌면 같은 이야기에 속한 — 두 젊은 남자와 함께.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답을 알아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끼지 않았다.

운명은 책을 덮으러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운명은 한 페이지를 더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부르고뉴의 한가운데에서 맞은 그 저녁, 모든 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Ferdinando